아트앤스터디 <오페라에 중독되다>

④ 베르디의 오페라 개혁

1. 역사를 다루는 베르디의 방식: 운명의 삼각관계와 가정비극

문학, 음악, 연극, 미술, 무용, 기술 등의 여러 분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오페라라는 예술 장르에서 각 분야에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논의되어왔다. 물론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음악이지만, 언어와 음악이 결합하는 방식이나 무대 연기의 비중을 놓고 작곡가와 대본작가 또는 연출가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다. 1813년 이탈리아 파르마 지방의 부세토에서 태어나 1840년경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26편의 오페라를 발표했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는 그 어떤 오페라 작곡가보다도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1) 목소리와 기교에서 극적(劇的) 표현력으로 중심이동

바로크 시대 오페라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극의 갈등 구조보다는 성악가 개개인의 음악적 재능과 테크닉에 의존했기 때문에, 관객의 환호를 얻는 인기 가수를 무대에 세우기만 하면 흥행이 보장되었다. 모차르트를 거쳐 로시니의 시대에 이르는 동안 오페라에서 차츰 대본과 연기의 비중이 커져가긴 했지만, 성악가의 목소리와 기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1842년에 베르디가 오페라 <나부코>로 첫번째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만 해도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는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의 작품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유려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가창, 가볍고 빠르게 음계를 오르내리는 기교로 관객을 사로잡는 벨칸토 오페라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베르디는 음악 못지 않게 연극적 요소들이 중시되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베르디와 같은 해에 태어나 동시대에 그와 쌍벽을 이뤘던 독일 작곡가 바그너는 음악극(Musikdrama)이라는 장르를 개척해 신개념 오페라를 내놓았지만, 베르디는 혁신적인 방식 대신 1600년에 오르페우스 이야기로 시작된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집대성했다. 시민계급의 성장과 함께 상업극장이 많아지면서 귀족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과 서민들 모두가 공유하는 오락이 된 오페라. 이런 사회적 변화와 함께 영웅과 신들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 이 예술은 베르디에 와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얻어, 그때까지 축적한 에너지를 풀어놓는다.

평론가들은 보통 1839년 작 <오베르토>부터 <나부코>, <에르나니>, <맥베스>, <루이자 밀러>를 거쳐 <스티펠리오>까지를 베르디의 초기 오페라로 분류하고, 흔히 베르디의 3대 걸작이라 부르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가 태어난 1850년대 초부터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돈 카를로>까지의 작품을 중기 오페라, 1871년 작 <아이다>와 그 후의 <오텔로>,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면서 희극 오페라인 <팔스타프>를 베르디의 후기 오페라로 나눈다. 또

분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운명의 힘>부터 후기 오페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분류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작품활동을 한 55년 간 꾸준히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어가고 또 새로운 음악적 조류의 영향을 수용한 베르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작품 속에는 베르디의 것임을 한눈에 알게 하는 특성들이 고루 들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소재를 재구성하고 대본을 쓰며 오랜 세월 일관된 주제에 집중했던 바그너와는 달리 베르디는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소재를 추구하며 수없이 많은 고전 문학작품과 동시대 작품들을 읽었다. 셰익스피어(맥베스, 오텔로), 쉴러(루이자 밀러, 돈 카를로), 빅토르 위고(리골레토), 알렉상드르 뒤마 2세(라 트라비아타), 안토니오 가르시아 구티에레스(일 트로바토레) 등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문호들의 걸작이 베르디의 오페라로 새롭게 태어났고, 고대 이집트(아이다), 기원전 바빌로니아(나부코), 중세의 마녀사냥(일 트로바토레), 파리 부르주아 사교계(라 트라비아타) 등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베르디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의 사실은 주인공의 세계관을 짐작하게 해 주는 단서는 될지언정 베르디 오페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베르디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운명의 삼각관계와 가정비극이다. 그래서 이를 '주관성의 비극'이라고도 부른다. 아버지와 딸,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극의 핵심을 이룬다.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부모자식 관계가 외부의 유혹이나 운명적 힘과 결합해 비극을 이끌어낸다.

2) 성격과 감정은 추상적 언어 대신 음악으로 표현

그러나 오늘날 문학작품을 영화화할 때 생기는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베르디 역시 원작 훼손에 대한 비난과 맞서야 했다. 당시의 문학작품이란 우리가 오늘날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 작품들까지도 운문 형태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베르디는 오페라의 연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일상어에 가까운 산문 형태로 바꾸고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 역점을 두려 했던 것이다. <아이다>를 작곡할 때 베르디는 "오페라의 내용과 주제가 요구하는 바를 음악으로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원작의 리듬, 운율, 시행 따위는 당장 내다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페인 국민문학을 오페라로 망쳐놓았다고 욕을 먹었을 때는 "오페라 대본에는 환호성과 한숨, 고통의 외침과 분노의 절규가 필요하다. 음표를 달아 노래로 부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복잡하고 골치 아픈 단어와 문장들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맥베스 부인 역할을 위해 맑고 고운 목소리 대신 표현력 있고 목이 쉰 듯한 음성의 가수를 찾아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갈등은 추상적이고 관조적인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믿었던 베르디였기에 '문학작품을 훼손한다'는 비난은 별 의미가 없었다.

<포스카리 부자(父子)>,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등의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정치와 역사의 소재를 취했지만, 언제나 그랬듯 베르디는 정쟁보다는 개인의 심리와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극을 이끌어가고 싶어했다. 그래서 대본작가로 하여금 애정과 우정을 둘러싼 갈등의 드라마로 이야기를 구성하게 했다. 자신이 충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던 왕을 살해하게 되는 <가면무도회>의 레나토는 악역이 아니다. <오텔로>의 이아고조차도 단순한 악인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베르디의 오페라는 선과 악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모든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와 변명을 마련하고 있다. 그건 젊은 시절에 자식들과 아내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베르디가 알게 된 '운명의 힘' 덕분일 것이다.

2. 베르디의 주요 작품

1) <나부코Nabucco>(1842) : 이탈리아 독립의 열망

작곡 :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대본 : 테미스토클레 솔레라
원작 : 오귀스트 부르주아와 프란시스 코르누의 희곡 <나부코도노소르 Nabuccodonosor>) 및 구약성서 중 열왕기, 다니엘서, 예레미아서 등
초연 : 1842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배경 : 기원전 6세기, 히브리인들의 '바빌론 유수'

<주요 등장인물>

나부코(Nabucco. 바리톤) : 바빌로니아의 느부카드네자르 2세
아비가일레(Abigaile. 소프라노) : 나부코의 큰 딸.
페네나(Fenena. 소프라노 또는 메조소프라노) : 나부코의 둘째 딸
이스마엘레(Ismaele. 테너) : 예루살렘의 왕 제데키아의 조카
자카리아(Zaccaria. 베이스) : 히브리 대제사장
안나(Anna. 소프라노) : 자카리아의 여동생
바알의 대제사장(베이스)
압달로(Abdallo. 테너) : 나부코의 충신

* 대표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영상물 : 후안 폰스(나부코), 마리아 굴레기나(아비가일레) 등, 제임스 레바인 지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엘리야 모쉰스키 연출, 2001년 실황

2) <리골레토Rigoletto>(1851) : 지배계급에 도전한 광대 이야기

작곡 :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원작 :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은 즐긴다Le Roi s'amuse>(1832년 초연)
대본 :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이탈리아어)
초연 : 1851년 3월 11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배경 : 17세기 이탈리아 만토바(원작에서는 16세기 프랑스)
<주요 등장인물>

리골레토(Rigoletto. 바리톤) : 궁정광대
만토바 공작(Duca. 테너)
질다(Gilda. 소프라노) : 리골레토의 딸
마달레나(Maddalena. 메조 소프라노) :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
스파라푸칠레(Sparafucile. 베이스) : 청부살인업자
조반나, 몬테로네 백작, 체프라노 백작/백작부인, 마룰로, 공작의 시동 등

* 대표곡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3막의 4중창
* 영상물 : 젤리코 루치치(리골레토),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만토바 공작), 디아나 담라우(질다) 등, 파비오 루이지 지휘, 드레스덴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니콜라우스 렌호프 연출, 2008년 실황(한글자막)

3)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1853) : 약자의 편

작곡 :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원작 : 알렉상드르 뒤마 2세(Alexandre Dumas fils)의 <카멜리아 레이디La dame aux camelias>
대본 :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
초연 :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배경 : 19세기, 파리(초연 후 18세기로 바뀜)

<주요 등장인물>

비올레타(Violetta. 소프라노) : 파리 사교계 코르티잔(Courtesan)
알프레도(Alfredo. 테너) : 프로방스 출신의 부르주아 청년
제르몽(Giorgio Germont. 바리톤) : 알프레도의 아버지
플로라(Flora. 메조소프라노) : 비올레타의 친구
아니나(Annina. 소프라노) : 비올레타의 하녀
두폴 남작, 가스통 자작, 도비니 후작, 그랑빌 박사 등

* 대표곡 : 2중창 '축배의 노래(Brindisi)', '집시와 투우사의 노래'
* 영상물 : 안나 네트렙코(비올레타), 롤란도 비야손(알프레도), 토머스 햄슨(제르몽)등, 카를로 리치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빌리 데커 연출, 200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한글자막)

4) <돈 카를로Don Carlo>(1867) : 종교와 세속권력의 투쟁

작곡 :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대본 : 프랑수아 조제프 메리 & 카미유 뒤 로클(프랑스어)
원작 : 프리드리히 쉴러의 운문극 <돈 카를로스, 스페인의 왕자Don Carlos, Infant von Spanien>
초연 : 1867년 3월 11일, 파리 오페라극장(초연판)/1884년 1월 10일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개정판)
배경 : 1560년경 프랑스 및 스페인

<주요 등장인물>

돈 카를로(Don Carlo. 테너) : 스페인의 왕자(돈 카를로스)
엘리자베타 디 발루아(Elisabetta di Valois. 소프라노) : 프랑스 공주(엘리자베트)
로드리고(Rodrigo. 바리톤) : 포사 후작
에볼리(Evoli. 메조소프라노) : 스페인의 공녀(에볼리)
필리포 2세(FilippoⅡ. 베이스) : 스페인 왕 펠리페 2세(1527-1598)
종교재판장(Il Grande Inquisitore. 베이스) : 종교재판장
테발도(Tebaldo. 소프라노) : 엘리자베타의 시동
수도자(Un frate. 베이스)

* 주요곡 : 테너-바리톤의 2중창'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Vivremo insiem e morremo insiem), 두 베이스의 이중창(필리포 왕 - 종교재판장)
* 영상물 : 롤란도 비야손(돈 카를로), 아만다 루크로프트(엘리자베트), 드웨인 크로프트(로드리고), 로버트 로이드(필리포 왕) 등, 리카르도 샤이 지휘, 로열콘서트헤보오케스트라, 네덜란드오페라합창단, 빌리 데커 연출, 2004년 네덜란드오페라 공연 실황

5) <아이다Aida>(1871) :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승리

작곡 : 주제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대본 : 안토니오 기슬란초니

원작 : 오귀스트 에두아르 마리에트(카미유 뒤 로클 각색)
초연 : 1871년 12월 24일 이집트 카이로 오페라 극장
배경 : 고대 이집트의 멤피스

<주요 등장인물>

아이다(Aida. 소프라노) :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온 에티오피아 공주
라다메스(Radames. 테너) : 이집트 총사령관
암네리스(Amneris. 메조소프라노) : 이집트 공주
아모나스로(Amonasro. 바리톤) : 아이다의 아버지. 에티오피아의 왕
람피스(Ramfis. 베이스) : 이집트의 제사장
이집트 왕(베이스) : 암네리스의 아버지
무녀장(소프라노)
* 주요곡 : 라다메스의 아리아 '청아한 아이다'(Celeste Aida), '개선장면'
* 영상물 : 비올레타 우르마나(아이다), 로베르토 알라냐(라다메스) 등, 리카르도 샤이 지휘,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프랑코 제피렐리 연출, 2007년 실황

(음악평론가 이용숙 rosina@chol.com)

감상자료

1) <나부코> 중 '황금 옥좌에 오르리라'(Salgo gia del trono aurato)

2)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Va, pensiero)

3) <리골레토> 중 '천벌을 받을 가신들아'(Cortigiani, vil razza dannata)

4)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5)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Brindisi)

6) <라 트라비아타> 중 2막 집시와 투우사의 등장(Noi siamo Zingarelle)

7) <라 트라비아타> 중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Di Provenza, il mar, il suol)

8) <돈 카를로> 중 '주여, 저희 영혼에'(Dio, che nell'alma infondere)

9) <아이다> 중 '청아한 아이다'(Celese Aida)(도밍고-알라냐)

10) <아이다>중 '개선 장면'